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0.12

## 미 증시, 달러 강세 폭 축소에 상승 마감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달러 상승폭 ↓

•미 증시는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국지적인 중동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장 초반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 그러나 오후들어 발표된 9월 FOMC 의사록 이후 달러 상승 폭이 축소되자 시장은 상승 반전. 다만 국내시장에서는 2년물이 오르고 10년물이 하락하며 최근 -30bp 수준까지 축소되었던 장단기금리차가 -40bp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다우 +0.19%, 나스닥 +0.71%, S&P500 +0.43%, 러셀2000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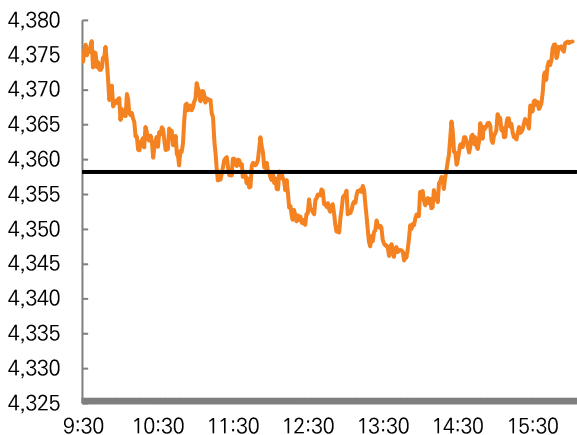
### 특징 종목: 헬스케어 內 희비

•S&P 500의 11개 섹터 중 장기채 금리 하락에 부동산(+2.01%)은 상승한 반면 유가 하락에 에너지(-1.35%)는 하락. 특히 헬스케어(-0.43%)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르디스크(+6.25%)는 자사의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인 오젠포(Ozempic)이 신장 질환(신부전증)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임상 결과를 공개하자, 마운자로(Mounjaro)를 보유한 일라이릴리(+4.49%)도 크게 상승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 반면 신장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비타(-16.86%), 프리세니우스 메디컬(-17.57%)과 만성 투석 용법용 제품을 만드는 박스터(-12.27%)는 급락을 기록. 특히 S&P 500의 메디컬 디바이스 섹터는 4% 넘는 하락을 기록.

### 한국 증시 전망: 美 CPI 관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1.73%, MSCI 신흥 지수 ETF는 0.6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37.79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상승. KOSPI는 0.2%~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만형들의 어닝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지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임. 다만 고려해야 할 2가지는 ① 이익은 개선됐지만 매출성장세는 더디다는 점과 ②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선물과 (비)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는 향후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됨.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상승에 따른 피로와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 또한 달러 약세에 따른 장중 달러/원 환율동향 주목.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50.08	+1.98	상해종합	3,078.96	+0.12
KOSDAQ	817.12	+2.78	홍콩항셱	17,893.10	+1.29
DOW	33,804.87	+0.19	베트남	1,150.81	+0.62
NASDAQ	13,659.68	+0.71	유로스톡스 50	4,200.80	-0.11
S&P 500	4,376.95	+0.43	영국	7,620.03	-0.11
캐나다	19,663.84	+0.83	독일	15,460.01	+0.24
일본	31,936.51	+0.60	프랑스	7,131.21	-0.4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① 9월 PPI ② 9월 FOMC 의사록

미 증시는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국지적인 증등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달리는 강세를 보이며 장 초반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 그러나 오후들어 발표된 9월 FOMC 의사록 이후 달러 상승 폭이 축소되자 시장은 상승 반전. 다만 국채시장에서는 2년물이 오르고 10년물이 하락하며 최근 -30bp 수준까지 축소되었던 장단기금리차가 -40bp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남.

### # 하락: 시장 예상 상회한 9월 PPI

9월 PPI는 전월대비 0.5% 상승하며 시장 예상 0.3%(이전 +0.7%)를 상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PI는 전월대비 0.3% 상승하며 시장 예상 0.2%(이전 +0.2%)를 상회. 이에 시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며, 높아진 원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워. 이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더 오래' 긴축적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2년물 국채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를 야기하며 장 초반 하락을 견인. 세부 항목별로는 상품 물가가 전월대비 0.9% 증가했는데, 에너지 물가가 3.3% 상승한 영향이 커. 반면 서비스 물가는 전월대비 0.3% 증가 기록했는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공 여객 서비스 가격이 전월대비 2.0% 하락하며 이를 상쇄시킴.

### # 상승: 9월 FOMC 의사록 선반영

오후 들어 발표된 9월 FOMC 의사록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됨. 특히 매파적 색깔이 강한 의사록과 달리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 면면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완화적(비둘기파적) 내용이 더 강했기 때문. 이 날도 역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긴축된 금융 상황으로 인해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우회적 발언을 하였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매우 좋았다면서 최근 (장기금리 상승과 같은) 금융 시장의 긴축은 연준이 해야 할 일부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 특히 3분기 GDP는 4%를 넘을 수 있으며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다만 연준 위원들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금융 긴축으로 인한 지연 효과 장기화, 노조 파업 효과, 글로벌 성장 둔화, 상업용 부동산(CRE)의 지속적인 약세 등을 주요 위험으로 언급하였음. 또한 미국 가계의 지출이 강력한 노동시장과 견고한 가계 대차대조표에 힘입어 상당한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초과) 저축 감소로 인해 일부 가계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재정 지출에 대한 신용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이는 엄격한 신용조건, 재정 지원 감소,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과 맞물려 소비 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있음.

### # 기타: 美 기업 파산 속도 '가속화'

S&P 글로벌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9월 62건의 파산 신청을 포함해 3분기 182건으로 높은 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 연간 누적으로는 516건 기록.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헬스케어 內 희비

S&P 500의 11개 섹터 중 장기채 금리 하락에 부동산(+2.01%)은 상승한 반면 유가 하락에 에너지(-1.35%)는 하락. 특히 헬스케어(-0.43%) 섹터 내에서의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르디스크(+6.25%)는 자사의 블록버스터 당뇨병 치료제인 오젠펙(Ozempic)이 신장 질환(신부전증)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임상 결과를 공개하자, 마운자로(Mounjaro)를 보유한 일라이릴리(+4.49%)도 크게 상승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 반면 신장 투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비타(-16.86%), 프리세니우스 메디컬(-17.57%)과 만성 투석 용법용 제품을 만드는 박스터(-12.27%)는 급락을 기록. 특히 S&P 500의 메디컬 디바이스 섹터는 4% 넘는 하락을 기록. 엔비디아(+2.20%)는 TD코웬이 목표주가를 700달러(이전 600달러)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로 유지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1.23%), 알파벳(+1.80%), 메타플랫폼스(+1.86%) 등 빅테크 역시 강세 기록. 반면 엑스모빌(-3.58%)은 20여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600억 달러를 들여 파이오니어리소스(+1.44%)를 인수하기로 결정.

상품 및  
FX시장 동향

## 불 플래트닝, 유가 하락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자 디스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우려 확산과 연준의 통화정책이 ‘더 오래’ 긴축적일 수 있다는 우려로 미 국채 2년물은 오르고(+1.4bp), 10년물은 크게 하락(-9.9bp)하며 최근 -30bp 수준까지 축소되었던 장단기금리차는 다시 -43bp 수준까지 확대되는 ‘불 플래트닝(bull flattening)’이 나타나. 이는 중장기 경제 성장의 경로가 불확실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9월 FOMC 의사록에 담긴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는 전일대비 2% 넘게 하락하였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의 범위가 더 크게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가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가 하방 압력을 키워. 또한 EIA(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휘발유 수요 감소와 재고가 증가한 점도 유가에 부담을 키워. 반면 국제 금 가격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온스당 1887달러를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 美 CPI 대기 속 관망 심리

MSCI 한국 지수 ETF는 1.73%, MSCI 신흥 지수 ETF는 0.6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37.79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14% 상승. KOSPI는 0.2%~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코스피(+1.98%)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만형(big brothers)’들의 실적 호조와 수급 개선, 달러/원 환율 하락 영향으로 지난 1월 9일(+2.63%) 이후 가장 높은 1일 상승률을 기록. 코스닥(+2.78%) 역시 지난 3월 15일(+3.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만형들의 어닝 낙수효과가 나타나는 지 주목할 필요 있어 보임. 다만 고려해야 할 2가지는 ① 이익은 개선됐지만 매출성장세는 더디다는 점과 ②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선물과 (비)차익거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이는 향후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됨.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상승에 따른 피로와 9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 또한 달러 약세에 따른 장중 달러/원 환율동향 주목.



## 장기채 금리 하락 지속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16	대형 가치주 ETF (IVE)	+0.36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52
소매업체 ETF (XLY)	+0.36	소형 가치주 ETF (IWN)	+0.19
온라인소매 ETF (EBIZ)	+0.30	대형 성장주 ETF (VUG)	+0.79
미국 인프라 ETF (PAVE)	+0.98	중형 성장주 ETF (IWP)	+0.15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57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0.16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26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56	미국 국채 ETF (IEF)	+0.55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0.09	하이일드 ETF (JNK)	+0.04
바이오섹터 ETF (IBB)	+0.49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56	물가연동채 ETF (TIP)	+0.45
반도체 ETF (SMH)	+1.0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6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부동산	218.23	+2.01	+4.70	-4.83
유틸리티	302.27	+1.63	+4.89	-5.51
커뮤니케이션	234.15	+1.07	+3.99	+1.34
IT	3,038.92	+1.01	+3.83	-0.97
산업재	876.60	+0.62	+3.53	-1.59
경기소비재	1,282.90	+0.48	+1.89	-6.17
소재	498.08	+0.23	+1.14	-3.36
금융	553.61	-0.03	+1.99	-3.06
헬스케어	1,521.70	-0.43	+1.94	-1.57
필수소비재	708.01	-0.64	-2.06	-6.83
에너지	670.72	-1.35	+1.95	-3.04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3.49	-3.07	-1.06	Dollar Index	105.721	-0.10	-1.01
브렌트유	85.82	-2.17	-0.07	EUR/USD	1.0618	+0.12	+1.09
천연가스	3.38	+0.44	+14.69	USD/JPY	149.19	+0.32	+0.05
금	1,887.30	+0.66	+2.88	GBP/USD	1.2314	+0.22	+1.48
은	22.13	+1.22	+5.08	USD/CHF	0.9020	-0.28	-1.66
알루미늄	2,214.00	+0.07	-1.45	AUD/USD	0.6414	-0.28	+1.41
전기동	8,024.00	+0.02	+0.94	USD/CAD	1.3594	+0.08	-1.10
아연	2,476.00	+0.16	-0.68	USD/RUB	98.3039	-1.91	-1.72
옥수수	488.00	+0.51	+0.41	USD/BRL	5.0552	+0.02	-1.99
밀	556.00	-0.31	-0.58	USD/CNH	7.3011	+0.18	-0.21
대두	1,252.50	-1.45	-1.57	USD/KRW	1,338.70	-0.80	-0.79
커피	147.70	+0.14	+0.92	USD/KRW NDF1M	1,337.79	-0.22	-0.94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554	-9.89	-17.88	스페인	3.817	-6.30	-19.90
한국	4.137	-8.80	-24.80	포르투갈	3.454	-6.10	-19.50
일본	0.769	-1.40	-4.00	그리스	4.218	-7.00	-17.40
독일	2.718	-5.70	-20.10	이탈리아	4.669	-5.60	-19.4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